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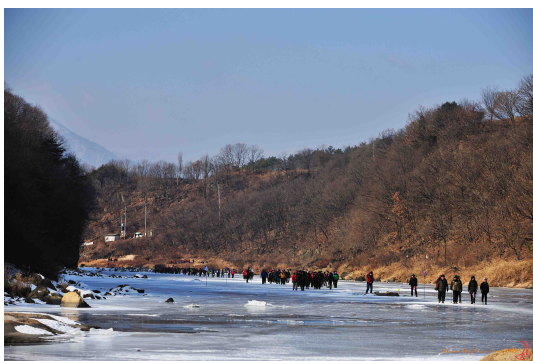
▶ 요란하게 강물이 흘러가는 곳 내대리 양수장



내대리 양수장 앞 한탄강

자갈밭을 지나면 모래사장이 길게 나타난다. 소리를 내며 흐르던 강물은 강 가운데를 턱 막고 있는 현무암 더미들로 인해 다시 잔잔해지고 물의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모인 물들은 강의 좌우에 설치된 양수장에서 펌 올려져 내대리와 장흥리 별판으로 공급된다. 내대리 양수장 주변에 새카만 현무암들이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양수시설은 천연 주상절리 위에 흰 시멘트 건물로 지어져있어 눈에 확 띈다. 강바닥에 즐비한 현무암 사이를 빠져나간 강물은 아래쪽으로 강바닥이 경사가 저 있어 더 빨리 하류로 흘러간다.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화강암 현무암 더미들에 의해 강물은 두 갈래로 나뉘고 강물소리는 여울을 이루며 우당탕탕 더 요란해진다. 강물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겨울에 아무리 기온이 내려가도 얼지 않는 곳으로 한탄강얼음트레킹 축제 때는 썰 다리를 놓았던 곳이다.

▶ 수직절벽이 한탄강을 호위하고 있는 장흥리 주상절리대



한탄강얼음트레킹의 명소 장흥리 협곡

물살이 빠른 곳을 지나면 다시 잔잔해지고 이곳부터 하류 쪽으로 2km 구간은 강폭은 아주 넓으나 좌우 절벽이 딱 막고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강 우측 절벽은 경사가 심하고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으며 좌측 절벽은 햇빛이 잘 들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좌측절벽 맨 아래 강물과 맞닿은 부분은 마치 바닥에서 죽순이 자란 것처럼 올망졸망한 주상절리들이 강을 따라 뺨뺨하게 이어진다. 까만 현무암으로 울타리 담을 쌓아놓은 것 같다. 거대하고 웅장한 주상절리도 장관이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한 주상절리도 한탄강의 자랑거리다. 주상절리 틈새로 돌단풍이 피어있고 어떤 바위에는 짙은 녹색 이끼가 잔뜩 덮여 고풍스러움을 더한다. 강폭은 넓으나 경사가 거의 없어 강물은 마치 절벽 안에 갇혀있는 것 같다. 물의 흐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마치 고운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하다. 다만 바람에 일렁이는 잔물결과 햇빛의 반사로 찰랑거림이 느껴져 고인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이 잔잔하고 강

양안으로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 한겨울에 최고의 얼음판이 만들어진다. 절벽사이에서 부는 바람이 몹시 차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아 얼음이 단단하다 보니 얼음트레킹 하기에는 최고의 적지이다.

▶ 여러 가지 모양의 화강암 전시장



강폭이 넓고 강 양쪽에 주상절리가 발달해있는 2km 구간을 지나면 집채 만 한 화강암들이 강물을 가로 막는다. 수십 m에 이르는 아주 큰 화강암 덩이가 밑바닥 기저를 떠받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10m 정도 바위들이 이곳저곳에 널려있다. 한마디로 거대한 바위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거북이바위, 항공모함바위, 고인돌바위, 종달새바위, 물개바위, 절구통바위, 요

술지팡이바위, 머핀바위, 빈대떡바위, 엉덩이바위 등 각양각색의 바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강 한가운데 있는 거대 화강암 지대를 돌아서 강물은 강의 오른쪽으로 물꼬를 터 하류로 향한다. 강가에는 돌단풍이 군락을 이루며 바위를 온통 뒤덮고 있어 마치 돌담에 담쟁이넝쿨이 퍼져있는 것 같다. 정 가운데 가장 큰 바위 위에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며 두 귀를 열고 가만히 눈을 감으니 저 멀리서 여름철새인 호반새 소리가 청아하게 들린다. 그리고 강 양옆을 따라 조성된 생태탐방로를 지나는 관광객들이 외치는 야호 소리가 절벽에 부딪혀 화음이 된다. 발밑에는 뽕얀 화강암 천지이지만 강가로는 새카만 현무암들이 수북하다.

▶ 그 옛날 나룻배가 건너다니던 한탄강 여울

화강암 지대를 지나면 자갈과 모래사장이 짝 펼쳐진 개활지가 나타난다. 이곳도 10~20cm의 적당한 크기의 화강암 현무암 사암 등 각양각색 돌들이 70~80m 길이로 깔려있다. 이 개활지는 지난겨울 철원한탄강 얼음트레킹축제 때 메인 행사장으로 쓰였던 장소로 평상시에는 낚시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승일교와 승일공원에서 진출입이 용이하고 강가에 모래사장이 발달해있으며 잔자갈이 널리 깔려있다. 오랜 세월 강물과 바람에 깎인 앙증맞고 귀여운 돌들이 너무 많다. 봄철 갈



철원한탄강 얼음트레킹 메인행사장

수기라 강물이 적은데도 바람이 불어 잔잔한 강물이 일렁이고 강렬한 햇빛에 반사되니 물결의 움직임이 활발해 보인다. 이곳은 승일교가 놓이기 전인 일제강점기 때 장흥리와 문혜리를 잇는 철배가 오가던 구간이다. 장흥리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없어 문혜리에 있는 공립보통학교에 다녀야했고 대부분 이 배를 이용해서 통학했다고 전한다. 장마철이 되어 큰 비가 내리면 며칠씩 학교에 못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개활지를 지난 강물은 경사진 바닥을 요란하게 소리 내며 흐르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승일교에 다다른다.



승일교 바로 밑 강바닥은 상당히 깊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화강암 절벽에 막혀 방향이 꺾이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강 밑을 쓸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승일교 위쪽 강 동쪽 절벽에는 커다란 바위 동굴이 7~8개 있다. 절벽에 동굴 입구가 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하회탈이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갈매기가 나는 모양과도 흡사하다. 절벽 위쪽의 산에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곳곳하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들이 많이 눈에 띈다. 바위와 소나무 그리고 그 밑을 묵묵하게 흐르는 쪽빛 한탄강이 어울려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이곳 절벽에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인공으로 빙벽이 만들어져 얼음장관을 연출한다. 여름에는 한탄강 래프팅 출발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붐빈다. 한여름 성수기 때는 강물에 떠있는 배가 수십 척에 이르고 빨강고 파랑고 노란 배들이 저마다 경쟁을 하며 내려간다. 이곳을 출발한 래프팅 배들은 짧게는 순담에서 끝나는데 2~3시간 걸리고, 긴 코스로는 동온동 군탄교까지 가게 되는데 4~5시간이 소요된다.

▶ 남과 북이 반반 놓은 통일의 다리 승일교(承日橋)

철원군은 6.25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가 전쟁 후 남한에 편입된 수복지구이다. 승일교는 1948년 8월 북한공산치하에서 남침교두보 확보를 위해 공사가 시작되었다. 다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전쟁이 발발해 휴물처럼 방치되다가 철원지역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질 무렵인 1952년 4월 미군공병대가 승일교 보강공사를 벌여 5개월 만에 완공했다. 승일교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다리모양이 다르다. 이는 다리 건설을 시작한 측과 완공



한 측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북합작 공사과정을 잘 알고 있는 철원주민들은 그때부터 남한 이승만 대통령의 “승(承)”자와 북한 김일성의 “일(日)”자를 따서 승일교(承日橋)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원래는 한탄교란 이름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당시 지도에는 한탄교라고 기명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후일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6.25전쟁 중에 빛나는 전공을 세우고 산화한 박승일(朴昇日) 대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주민들 이해와는 달리 승일교(昇日橋)라고 명명하였다. 우연하게도 한글 이름은 똑같았다. 이제 60년의 세월이 흘러 노후화된 승일교는 다리로서 소임을 다하고 문화재로서 철원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다. 승일교 옆으로 주황색 철제로 한탄대교가 새롭게 건설되어 한탄강을 넘나드는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다.

▶ 예로부터 문혜리 주민들의 쉼터였던 굴바위



승일교 아래쪽은 거대한 화강암들이 많고 경사가 심해 급류를 이룬다. 급류이기에 흘러가는 강물소리는 요란하고 우렁차다. 승일교에서 출발한 래프팅 관광객들은 처음부터 스릴 넘치는 급류의 짜릿함을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이 곳 주변은 이상하게도 현무암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뽕얕고 둥글둥글 곡면이 부드러운 집채만 한 화강암들이 즐비할 뿐이다. 급류 아래 오

른쪽에는 고석정 고석바위를 축소해놓은 듯한 화강암이 떡 버티고 서있다. 화강암 뒤로 이어져있는 바위들은 마치 방금 걸레로 싹 닦아놓은 듯이 깔끔하고 뽕얕다. 고석바위는 한탄강 한가운데 외롭게 서있는 한탄강의 최고 절경이다. 주변의 각진 화강암들은 마치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전의 대리석과 같이 아름답게 펼쳐져있다. 화강암 바위 틈새에는 돌단풍들이 줄을 지어 자라고 있고 꽃이 만개했다. 새카만 색의 현무암 사이에 피어나는 돌단풍과 비교가 되고 나름의 자태가 우러난다. 커다란 바위가 많고 물길이 좁고 물살이 거칠어 상류로 올라가려는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 자연스럽게 낚시꾼들도 많이 찾아온다.

화강암들이 즐비한 급류구간을 빠져나간 강물은 폭이 넓어지고 다시 잔잔해진다. 70m 정도 되는 강폭에 수심이 깊고 하류쪽에 크고 작은 돌들이 보를 형성하고 있어 강물이 짝 차있다. 강의 양쪽으로는 수풀이 무성하고 그 뒤로는 절벽이라기보다는 경사진 산등성이가 펼쳐지고 각종 나무



들이 울창하다. 지역주민들은 이곳을 굴바위라고 부르고 승일교에서 출발하지 못한 나머지 래프팅 배들이 이곳에서 출발한다. 굴바위는 강 양쪽 바위에 동굴 모양 구멍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푸른 강물이 가득 찬 곳은 해마다 한겨울에 강물이 얼어붙으면 소방서에서 수난구조훈련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스킨스쿠버들이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곳이니 수심이 깊다. 한탄강은 화산폭발과 급격한 침식으로 이루어진 강이라 굴곡이 심하고 바닥의 요철이 심해 위험요소가 크다. 강 양쪽을 잇는 보는 어찌 보면 옛날 주민들이 건너다니기 위해 징검다리를 놓은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이곳은 승일교가 건설되기 전인 일제강점기에 장흥리와 지포리를 오가는 주민들이 배를 타고 건너다녔던 곳이라고 한다.

▶ 두 갈래 물줄기가 거침없이 흘러가는 곳



보름 지난 강물은 다시 경사진 곳을 요란하게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꺾어진다. 강의 서쪽으로 기괴하게 생긴 화강암 바위가 눈에 띄는데 바위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 마치 해골을 연상케 한다.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해골바위의 희한하게 생긴 커다란 구멍 주위에는 돌단풍이 피어있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바위 앞쪽 주변 강가에는 직경 40~50cm 정도 되는 크고 작은

화강암과 현무암 돌들이 넓게 깔려있다. 이곳의 돌들은 다소 경사진 곳에 있어서인지 이제껏 보았던 돌들보다 깨끗하다. 강물의 유속이 빨라서 주변의 돌들이 깨끗이 씻겨 나간 모양이다. 강 건너편에 작은 화강암 절벽이 보이며 그 주변으로 소나무와 잡목이 무성하다. 강의 서쪽인 오른쪽으로는 은사시나무 군락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건너편 절벽과 비교된다. 이곳은 남향인데다가 조림된 나무가 뻗뻗하게 잘 자라고 있어 한탄강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이곳에서 강물은 가운데 자갈 둔덕을 사이에 두고 물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유속도 아주 빠르다. 비가 많이 오면 한 갈래로 흐르겠지만 평상시는 항상 두 갈래로 흐른다. 래프팅 관광객들이 이곳을 지날 때면 그 속도감에 비명을 지른다. 한편 한겨울에 다른 곳은 다 얼어도 이곳만은 얼지 않아 인위적으로 다리를 놓아야만 도강할 수 있다. 강의 오른쪽 절벽 위에 한탄강호텔이 우뚝 솟아있고 저 멀리 고석정 정자가 어렴풋이 보인다.

▶ 오랜 세월 한탄강을 홀로 지키고 있는 고석정(孤石亭)

고석정(孤石亭) 한탄강 한가운데 20~30m 우뚝 솟은 화강암 바위를 보면 탄성이 절로 난다. 더군다나 그 바위 꼭대기에 일곱 그루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 신비롭기까



고석정 전경

을 달랬던 것 같다. 역대 왕들이 자주 다녀가는 절경이라 이후 많은 백성들이 즐겨 찾는 명승지가 되었다.

지 하다. 흙이라고는 전혀 없는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을 유지하며 한탄강을 외롭게 지키면서 도도한 절개를 지키고 있다. 소나무 옆으로 울긋불긋 진달래까지 피어 고고한 아름다움에 화려함까지 더하고 있다. 고석바위 아랫부분은 바위 층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있어 시루떡이 놓여있는 듯하다. 위로 갈수록 면적이 줄어들고 기묘묘한 모양이 이어진다. 바위 상층부에 강 쪽으로 통할 수 있는 굴이 있고 입구에 구멍이 나 있는데 조선 중기 의적 임꺽정이 관군에 쫓겨 이 구멍 뒤로 숨었다가 강물로 뛰어내려 꺽지로 둔갑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고석정에는 조선시대 태종 세종 문종 등 많은 왕들이 다녀갔다고 실록에 전한다. 드넓은 철원평야 강무장에서 사냥을 하고 고석정에서 한탄강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고단한 심신을 달랬던 것 같다.

신라 진평왕이 이름 지었다고 전해지는 고석정(孤石亭)은 홀로 고(孤) 돌 석(石) 정자(亭)자를 쓴다. 오랜 세월 한탄강을 홀로 지키고 있는 정자인 셈이다. 이름만 놓고 보면 정자나 누각을 의미하나 옛 기록을 보면 우뚝 솟은 넓은 바위 그 자체를 천연의 정자로 본 것 같다. 고석정에 대한 최초의 문헌기록(충렬왕 14년, 1288)인 고려시대 승려 무외(無畏)의 「고석정기(孤石亭記)」에 “철원군 남쪽으로 만여 보(步)를 가면 신선(神仙)의 구역이 있는데, 서로 전하기를 고석정이라 한다. 그 정자라는 것은 큰 바위가 우뚝 솟아 일어나 높이가 3백 척 가량 되고 주위가 10여장(丈)쯤 되는 것이다. 바위를 따라 올라가면 구멍 하나가 있는데, 기어 들어가면 집의 층대와 같이 생겼는데, 10명쯤 앉을 수 있다. 옆에 옥돌로 된 돌비가 서 있는데, 신라 진솔왕(眞率王)이 놀러 와서 남긴 비(碑)다. 구멍에서 나와 꼭대기에 오르면 평평하여 둥근 단(壇)과 같은데 거친 이끼가 끼서 돛자리를 편 것 같고, 푸른 솔(松)들이 둘러서 일산(日傘)을 펴 놓은 것 같다.”라고 전한다.

고석정 주변의 절벽이나 바닥을 이루는 거대한 바위는 대부분 화강암이다. 고석정 상류에서 두 갈래로 요란하게 소리 내며 흐르던 강물은 고석정에서 다시 합쳐지고 바위절벽에 맞닥뜨리면서 왼쪽으로 방향이 꺾이게 된다. 강 동쪽에는 뾰얀 자갈과 모래가 무성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강 서



쪽에는 바위절벽이 턱 막혀있다. 바닥으로부터 드러난 거대한 기반암에 둥글둥글한 화강암 바위들과 각지고 울퉁불퉁한 현무암 바위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새카만 현무암에는 거무스레한 이끼들이 끼어있고 사이사이에 조그만 잡목들이 퍼져있다. 강폭이 좁아지고 양쪽 절벽이 가까이 마주하고 있어 아늑한 분위기다. 강물 색깔이 검은 바위에 투영되어서 유난히 검푸른 빛깔을 띠고 무척 깊어 보인다. 한꺼번에 몰린 강물이 좁은 바위틈을 세차게 밀고나가 바닥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편 강물 색깔이 짙고 강물이 바위에 간혀서인지 그냥 깊은 연못 같은 느낌이 들고 강물 흐름이 그리 빨라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고 밑에서 일고 있는 유속은 훨씬 빠르다. 고석바위 하류 쪽으로는 모래톱이 발달해있고 전체적인 절벽풍광이 한눈에 들어와 종종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소로 인기가 높다. 고석바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봐도 품격 있고 고고해 보인다. 하지만 계절마다 풍기는 멋은 각기 다르다.

▶ 거대한 현무암 터널 같은 고석정 기암절벽



각양각색의 바위로 장식된 고석정협곡

고석정 아래쪽은 강 양쪽 절벽 간격이 유난히 좁다. 가까운 곳은 30m도 안 될 정도로 가깝고 높은 절벽이 병풍과 같이 서있어 고요하고 아늑하다. 다만 가끔 이곳을 오가는 유람선의 엔진소리와 래프팅 관광객들의 웅성거림만이 정적을 깰 뿐이다. 강 양쪽 절벽에는 기기묘묘한 형상을 한 바위들이 참 많다. 특히 동물 모양의 바위가 많아 거북이 바위, 잉어 바위, 돼지 코 바위, 물개 바위, 오소리 바위 코끼리 바위 등 각양각색 부조물들이 관광객 눈을 즐겁게 한다. 래프팅 관광객들은 이곳을 지날 때 함성을 지르기보다 조용히 양쪽 절경을 감상하며 묵묵히 노만 젓는다. 사람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기 때문이다. 강 속을 바라보면 그 검푸른 색깔이 유독 짙어 보여 확실히 깊이가 느껴진다. 이곳을 지나는 것은 어떤 관문이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고석바위에서 500m 정도 내려가면 양합수가 나온다. 말 그래도 두 갈래의 물길이 만나는 곳인데 한탄강 원류에 철원·동송 지역을 흘러온 대교천 물이 합세하는 것이다. 양합수 지점의 강 동쪽 절벽에는 화강암이 20여m 높이로 세로 방향으로 줄지어 서있고 그 옆으로는 시루떡과 같이 가로방향으로 쌓여있기도 해 서로 묘한 비교가 된다. 절벽의 맨 위쪽에는 소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절벽의 중간에는 돌단풍들이 쭉 나있고 꽃도 피어있다. 양합수를 기점으로 하류 쪽은 강 동쪽은 강원도 철원군, 강 서쪽은 경기도 관인면에 해당되어 한탄강이 도계가 되는 셈이다.

▶ 천연기념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천연기념물 제436호 대교천 현무암협곡

대교천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에서 시작되어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오덕리·장흥리를 거쳐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와 경계를 이루고 고석정 부근에서 한탄강에 합류한다. 지방2급 하천으로 유역 길이 약 12km, 협곡의 폭 25~40m, 높이는 약 30m에 달한다. 대교천은 현무암 용암대지가 침식해 형성된 하천으로 양안에 원시적인 기암절벽이 형성되어 있어 곳곳이 절경이다. 특히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의 경계가 되는 하류지역 약 1.5km 구간은 현무암 협곡이 수직단애를 이루고 다양한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어 문화재청이 2004년 2월 23일 천연기념물 제436호로 지정하였다. 대교천 현무암 협곡의 절대 연령은 약 27만 년으로 분출한 용암이 최소한 3회 분출 단위를 보이는 추가령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현무암 내 보존되어 있는 주상절리의 보존성이 우수해 제4기 지질과 지형 발달을 이해하는데 학술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석정에서 관인면 방향으로 100여m 가면 궁예도성이라는 음식점이 나오고 그 경내를 통과해서 남쪽방향으로 내려가면 대교천 현무암 협곡에 도달한다. 입구에서부터 하천바닥은 물론 절벽 밑에 원시형태 현무암 더미들이 수북이 싸여있고 30m 이상인 높은 기암절벽은 막 무너져 내릴 기세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대교천이 용암폭발 전 이미 있었던 원래 한탄강이라 말한다. 거무스레한 현무암 더미에 쭉 색깔 이끼들이 뒤덮여있고 혼잡하게 섞여있는 바위 틈새에 핀 진달래는 단연 돋보인다. 바위 위쪽에는 버드나무와 잡목들이 열기설기 얹혀있어 무너지려는 주상절리를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절벽 맨 위에 있는 나무들은 마치 고사목같이 우두커니 서서 하천바닥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양쪽 절벽과 하천바닥 모두가 현무암으로 짝 차있으니 아름답다기보다는 상당히 투박하고 거칠어 보인다.

▶ 철원군 한탄강 래프팅의 메카 순담계곡

순담계곡은 근처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순담(蓴潭)이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전해져 붙여진 이름이다. 순채(蓴菜)가 자라는 연못이란 뜻으로 순채는 열을 내리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해독작용을 해 당시 궁중에서 약용식물로 사용했다. 계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탄강이 여기서 하나의 커다란 화강암 계곡 또는 골짜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순담계곡은 주변이 온통 화강암 천지이고 강의 굴곡이 심하다. 강폭도 좁아



래프팅의 메카로 유명한 순담계곡

강물이 불어나면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우렁차게 흘러간다. 래프팅 관광객들이 무척 좋아하는 구간 중 하나다. 순담은 래프팅 출발지인 승일교와 도착지인 군탄교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기도 하고 짧은 코스로 끝내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마치기도 한다. 한편 이곳에서 출발해 군탄교까지만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많다. 순담은 이제 철원군 래프팅의 메카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업체들이 운집해있

어 한여름이면 강물에 물보다 배가 더 많다. 계곡을 빠져나오면 강폭이 넓어지고 왼쪽으로 모래사장이 펼쳐지며 오른쪽에는 화강암 잔돌들이 지천으로 깔려있다. 순담계곡은 수려한 화강암 계곡을 조망할 수 있고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어 예로부터 근처 학교들의 소풍지로 유명했다. 70~80년대에는 낚시를 하고 캠핑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야영을 많이 했는데 최근 캠핑열기가 다시 일어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이내 강은 오른쪽으로 90도 꺾어지고 강변 바위산에는 소나무와 진달래가 씩씩하게 자라고 있으며 저 멀리 한탄강CC가 보인다.

▶ 궁예왕과 관련된 전설이 많이 전하는 샘소

순담을 지난 강물은 한탄강CC에 이르러 알파벳 E자 모양으로 두 번 꺾이는데 강 양옆으로 깎아지른 화강암 절벽이 터널처럼 이어진다. 약 1km 가량 이어지는 이 화강암 협곡을 샘소라 부르는데 강을 기준으로 동쪽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이고 서쪽이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이다. 샘소라는 명칭은 사계절 내내 수량이 변하지 않는 유명한 샘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관인취수장이 설치되어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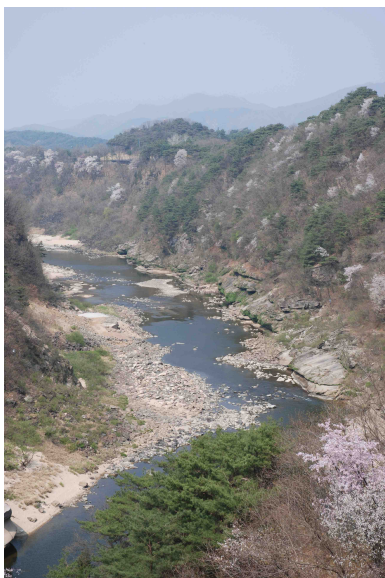


래프팅 최고로 포인트로 알려진 샘소

인면 상수도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이다. 이 지역은 절벽이 심해 접근이 어려워 절벽 위 먼발치서 풍광을 즐기거나 가까이서 보려면 직접 래프팅을 하며 감상해야 한다. 화강암 절벽 구간을 지나면 다시 절벽에 주름치마가 걸려있는 것처럼 섬세한 현무암 주상절리가 펼쳐진다. 군탄리 쪽 한탄강변에 한탄강CC가 자리하고 있어 예전처럼 일반인들이 천렵이나 물놀이를 위해 한탄강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샘소 인근에는 태봉국 궁예왕과 관련된 전설이 전하는 지명이 여러 곳 있다. ‘왕정랑’이라고 하여 궁예왕이 바지를 걷고 한탄강을 건너던 곳이 있으며, ‘왕제탄’(왕제여울)

은 궁예왕이 왕건에게 쫓겨 강을 건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이라 한다. 한편 왕제 탄 아래에 ‘말등소’라는 소(沼)가 있는데 궁예왕이 말을 타고 건너가다가 쉬어간 곳이라 한다.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이 완전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인데 반해 샘소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협곡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한탄강 중에서 가장 멋진 굽이와 급한 경사로 많은 여울이 몰려 있어 한탄강 래프팅 코스 중 최고의 포인트로 꼽힌다.

▶ 래프팅 관광객들이 조용히 쉬어가는 드르니 너른바위



너른바위 상류 쪽 한탄강

드르니 마을이나 동온동 마을에서 한탄강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옛날에 7~8군데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없어졌고 2~3군데만 가능하다. 강 근처에 접근하더라도 강가로 내려가는 길을 찾기가 만만치 않고 한탄강 절벽의 경사가 워낙 심해 위험하다. 드르니 지역 한탄강 절벽은 철원군 가운데 가장 깊고 높다. 강으로 내려가는 길이 험해서 별도의 지지대나 길옆 나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려가기가 힘들다. 소로를 따라 내려가면 길이가 20~30m에 이르는 거대한 화강암 바위가 나오고 강물에 연결되어 있다. 바닥의 거대 화강암 바위는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고 바위 꼭대기에서 상류 쪽을 바라다보면 흰하게 트인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너른 바위 상류 쪽 한탄강은 하류 쪽보다 강폭이 넓고 절벽 경사도 덜 급하다. 이곳의 절벽은 현무암보다 화강암 바위들의 위세가 당당하다.

강의 동쪽에 해당하는 우측은 화강암 바위가 짙은 남가리 차곡차곡 쌓아 놓은 듯이 층을 이루고 있다. 층과 층 사이에는 돌단풍이 파릇파릇 깔려있고 그 위로로는 벚꽃이 화사하게 핀 나무와 분홍빛이 돋보이는 진달래 그리고 짙은 녹색 소나무가 서로 열기설기 자라고 있다.

저 멀리로 보이는 절벽은 흰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이 갖가지 꽃들이 만발했고 절벽 위에 자리한 골프장 쉼터가 유독 또렷하게 보인다. 강의 서쪽인 좌측 절벽 아랫부분은 역시 우람한 화강암이 툭 튀어나와 있고 그 위로 소나무가 고고한 자태를 뽐낸다. 거무스름한 바위와 푸른 소나무가 대조를 이루고, 절벽 위로 줄지어 서있는 나무들도



너른바위에서 쉬어가는 래프팅관광객

파란 하늘에 대비가 되어 더욱 돋보인다. 강물의 색깔은 쪽빛 색깔을 띠고 강물은 깊어 보이며 강물 속 커다란 바위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물 흐름은 거의 없어 깊은 연못이 연상된다. 승일교나 순담에서 출발한 래프팅 배들은 이곳에 다다르면 한번 쉬어간다. 노를 젓지 않고 그냥 강물에 배를 맡기고 조용히 숨죽이며 강 양쪽으로 펼쳐지는 기기묘묘한 풍광들을 감상한다. 너른바위 바로 앞 강 한가운데 돌고래 모양을 한 커다란 바위가 있다. 래프팅 배들은 이 돌고래 바위를 돌아 아래쪽으로 향하는데 강 서쪽으로는 웅장한 수직적벽 주상절리가 전개된다.

▶ 강폭은 좁고 절벽이 깊어 운치 있는 동온동 주상절리



수직적벽을 이루는 동온동 주상절리

강폭이 그리 넓지 않고 절벽의 높이가 30~40m 정도여서 강바닥에 내려가 하늘을 쳐다보면 양쪽절벽 끝선 사이로 파란 하늘과 구름이 보인다. 주상절리 기암절벽이 태고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강바닥에는 뽕얀 화강암이 깔려있고 강 양 옆 절벽과 그 밑에는 시커먼 현무암이 수북이 쌓여있다. 강 건너편 수직절벽에 대고 속삭이면 그 조그만 목소리도 울려 그대로 들릴 정도로 가깝다. 피꼬리와 빠꾸기 등 절벽 나무 사이에 둥지를 튼 여름철새들의 낭랑한 소리가 유독 더 맑게 들린다. 강 동쪽은 절벽이라기보다는 경사진 산등성이에 가깝고 갖가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봄을 맞이해서 하얀 연분홍색의 벚꽃나무들이 만개해 산에다 수채화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다. 강바닥에는 10~50cm에 이르는 화강암과 현무암 등 갖가지 바위들이 여기저기 섞여서 깔려있다. 강 서쪽은 반대쪽 보다는 경사가 급한 수직절벽이 발달해있다. 곧 쏟아질 것 같은 현무암 절벽이 병풍같이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기록에서 말하고 있는 수직적벽(垂直赤壁)이 바로 여기다. 5~6개의 두껍고 넓은 커가 발달한 기암절벽이 층층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화산폭발이 일어났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절벽의 위쪽은 황톳물이 자주 넘쳐서 그런지 누르고 시뻘건 황토 흙이 절벽을 뒤덮고 있고, 중간 중간 절벽은 시커멓거나 아주 새카만 색깔을 띠는 곳도 있다. 절벽 중간에는 아스라이 걸쳐있는 나무들이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강물과 맞닿은 5~6m 주상절리에 돌단풍이 소복하게 자라고 있어 담쟁이 넝쿨이 담을 뒤덮은 것과 같다. 이곳 주상절리는 그 어느 곳보다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간격이 좁다보니 아주 단단하고 튼튼해 보인다. 물이 자주 쓸고 내려간 부분은 검은 빛이 돌고 오래전부터 물이 닿지 않은 부분은 회색빛이 돈다.

강물에 맞닿은 절벽의 아랫부분에는 이미 무너져 내린 현무암 바위들이 수북하다.

크기가 1~2m에 이르는 커다란 바위부터 50~60cm 정도의 새카만 바위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 밑을 흐르는 강물은 경사가 급하지도 않은데 유속이 빠르고 물소리도 제법 크다. 물소리가 절벽에 울려 퍼지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더 크고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강바닥에는 기기묘묘한 돌들이 많다. 오랜 세월 흐르는 물에 깎이고 채이면서 표면은 매끄럽고 둥글둥글하다. 50~60m 하류 쪽으로 가면 약간 물길의 원



폭이 좁고 깊이가 있는 동온동 협곡

쪽으로 꺾이면서 경사가 심해지고 강물은 급류가 된다. 그리고 주변에 현무암 바위들이 즐비해 물길이 방해를 받아 래프팅객들이 이곳을 지날 때면 환호를 지르면서 스릴을 만끽한다. 급류 좌우측에는 시커먼 현무암들이 수북하게 쌓여있어 너른바위 주변에는 화강암만 수두룩했던 광경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곳에는 화강암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절벽중간부분까지 시커먼 현무암들로 산성을 쌓아놓은 것 같다. 현무암 중간중간에 연녹색의 나무들이 따뜻한 기운에 파릇파릇 올라오는 것이 봄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듯하다. 저 멀리 하류 쪽을 바라보니 강폭의 더 좁게 보이고 시커먼 절벽 중간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의 꽃이 유난히 희게 보인다. 강 위에 연이어 서있는 나무들은 아직 푸른 잎이 덜 나오고 가지만 또렷하게 보여 옛 초가집 사립문 같다.

▶ 철원군 래프팅의 종착지 군탄교



철원군 래프팅 종착지 군탄교 한탄강

강폭이 좁고 절벽이 깊으며 길이가 2km 정도 되는 동온동 주상절리 구간을 지나면 강폭은 다시 넓어지고 시야도 두 배 이상 확 트인다. 개활지 한탄강 한가운데 철원군 갈말면 군탄리 동온동과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를 잇는 군탄교가 있는데 이곳이 철원군 래프팅의 종착지이다. 승일교나 순담에서 출발한 래프팅 관광객들은 현무암 주상절리와 화강암 협곡을 만끽하고 3~5시간에 걸친 여정을 마치게 된다. 군탄교 도착

직전 마지막 200m 구간에서는 힘들었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주상절리 탐방을 끝내야한다는 아쉬움에 노를 젓지 않고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에 배와 몸을 맡긴 채 조용히 숨죽여 자연과 하나 된다. 한탄강은 화산폭발로 형성된 용암대지가 급격하게 침식되면서 만들어진 강이기에 전 구간이 깊이 20~30m 기암절벽으로 이어진다. 병풍같이 펼쳐진 주상절리와 용암동굴 같은 수직적벽 터널을 통과하고 굽이가 심하고 경사도

급하며 물살이 강한 여울을 이겨내고 목적지인 군탄교에 도착한 성취감은 최고다. 군탄교는 오래전에 있던 조그만 다리를 없애고 다시 놓았으나 1996년 대규모 수해로 떠내려가 현재 절벽 끝과 끝을 연결하는 대교가 건설되고 있다. 군탄교 주변 강바닥은 평평하고 깊지 않으며 비교적 작은 돌들이 많이 깔려있다. 군탄교를 지나면 경사가 급해져 강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동온동 합수지를 향해 내려간다.

▶ 동온동 합수지에서 큰 강이 되어 경기도로

70~80년대 주민들은 자전거나 리어카에 솔단지 등을 싣고 1~2시간씩 걸어서 군탄교 한탄강에 와 물고기를 잡고 즉석에서 매운탕을 끓여먹는 천렵을 즐겼다. 최근 군탄교 주변에 펜션이 많이 생겨 이제는 그러한 피서 광경을 볼 수 없다. 경사지를 굽이쳐 요란하게 내려간 강물은 다시 평온해지고 기암절벽 주상절리가 또다시 이어진다. 군탄교 위쪽 보다는 강폭이 좀 넓어져 웅장한 맛이 난다. 강물의 흐름이 잔잔



동온동 합수지에서 경기도로 흐르는 한탄강

한 가운데 양쪽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오히려 적막을 깬다. 양쪽 절벽에 나무와 넝쿨식물이 우거져 기암절벽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잔잔하게 1km 정도 흘러 내려가면 한탄강은 군탄개울과 만난다. 문혜천, 용화천, 명성천 등이 합쳐진 군탄개울은 한탄강과 동온동을 사이에 두고 흐르다가 이 합수지에서 만난다. 군탄개울 양 옆으로 현무암 주상절리가 발달했고 바닥에 기암괴석들이 수북해 한탄강 못지않은 풍광을 연출한다. 옛날에는 비둘기들이 절벽에 집을 많이 지어 동네사람들은 비둘기낭이라고도 불렀다. 동온동 합수지에 이르면 지금까지의 한탄강보다 강폭과 유역이 더 커져 비로소 큰 강이라는 느낌이 든다. 동온동 합수지는 인근 학교의 단골 소풍지였고 두 물이 만나는 곳이라 물고기와 다슬기가 많아 여름이면 아이들이 붓뽕던 곳이나 지금은 인적이 아예 없다. 이곳을 기점으로 한탄강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간다. 이곳에서 하류 쪽으로 20km 떨어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와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에 2009년 공사가 시작되어 2014년 완공되는 한탄강 댐(길이 705m 높이 85m)으로 인해 철원 한탄강협곡 절경 중 다수가 수몰될 예정이라 한탄강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다.